



SHANZAI

Rissho Kosei-kai

Vol. 75



會長 法話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입정교성회 회장니와노니치코

흘로서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석존께서는 자신의 입
멸을 눈앞에 두고 제자인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섬으로 여기고 자신을 의지
처로 여기되 절대 타를 의지처로 삼지 말며, 법을
섬으로 여기고 법을 의지처로 여기되 절대 타를 의
지처로 삼지 말라」 일체 사물이 변천하는 이 세상
에서 확실한 의지처가 될 「섬」은 자기 자신이며
진리·법이다. 때문에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른
바 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의 가르침입니다
만, 여기에서 제시된 「섬」과 「등명」이라는 것
은 표현이 다를 뿐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석존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미
모든 법은 다 설하였다」고 하시고는 이어서 「자
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여 살라」고 제시하셨
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석존이
시기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법을 인
식하여 각자가 자립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즉 석존께서는 누구에게나 통하
는, 당연한 것을 설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



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미 자등명의 인생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도 모릅니다.

깨달음이 중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아침저녁의 독경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대로 진정 자신을 의지처로 여기며 반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등명이 되겠지요?

또 「먼저 남부터」의 정신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보살행도 법을 의지처로 여기고 자신을 의지처로 여긴 실천입니다. 그것에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자기중심으로 치우치기 쉬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도 확고한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가(좋은 친구)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닦는 법좌의 자리에서는 진리·법에 맞추어 고뇌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깨달아 그 마음의 전환을 꾀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각자의 특징을 살려 눈앞의 일에 몰두하고 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자등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저의 셋째 딸은 독경하는 소리가 유난히 맑고 투명하여 도사를 하는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일도 주변을 비추는 등명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인을 의지처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 냉정하고 비정한 인상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서로 살리고 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는 「타를 의지하지 않아도 모두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즉 본래 이미 구제받고 있는데 미숙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빨리 깨달아서 진리·법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어떤 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석존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합시다.❖

『佼成』 2011년12月号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니코, 협조 나가누마묘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경전으로하는 제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니코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鈴木孝太郎 編集者: 中村悦子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工藤友紀乃・齋藤華央留・江藤真弓・鈴木佐佑里・金尾江利子・牧野江身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版」「モンゴル語版」「タイ語版」「ベンガル語版」「ヒンズー語版」「ロシア語版」がございます。また、号によってはその他の言語版が発行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ご遠慮なく上記の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